社 說

더이상의 책임방기는 안된다

— 범경회인의 날 무산을 지켜보며

지난 몇달동안 우리는 대학 내·외부로부터 너무도 많은 시련을 겪었다.

정부의 약사법개정으로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 되었고, 이를 방단으로 조영식총장이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며 사퇴하는 불상사까지 경험해야 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의 우려속에 한의대생들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이번에는 약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이 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지난 주말 학생과 직원 교수 뿐만 아니라 동문들까지 포함된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절감하고 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범 경희인의 날'이 계획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 행사를 위해 대학당국과 직원 노동조합, 동문회 대표 그리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경희를 대표하는 5자가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나 화합과 제도약을 기약하자던 행사가 각 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와 불신으로 행사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한다.

학생측의 입장은 경희의 화합은 경희학원의 민주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총장선출문제를 '범 경희인의 날'에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반해 교수협의회와 동문회측의 입장은 외부동문들까지 참여하고 제도약을 기약하는 행사에서 총장선출과 같은 예민한 현안문제를 굳이 표면화 시킬 필요가 없으며, 총장선출의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서로간의 의견차를 드러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총장선출에 대한 학생들의 논의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한 교수협의회에서는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범 경희인의 날'이 예정된 29일이 훨씬 지난 다음날 3일로 전체교수의회 날짜를 잡아 사실상 총장선출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의견개진 기회를 빌도로 갖는다한다. 이에대해 총학생회는 기자회견까지 불사하는 감정대립으로 발전돼 버린 상태에 있다. 애초 잘해보자고 시작했던 행사가 결국 구성원들간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만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개교 이래 반세기동안 우리대학을 지탱해 왔던 끈끈한 사제지간의 정이 서로 신임하지 못하고 불신이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또한 타인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미덕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희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를위해 대학당국도 4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개교 50주년을 위한 성금모금도 벌여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도약을 위한 '범 경희인의 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선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이니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사표명이 있어야겠다. 특히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것도 결국 교수협의회의 임무가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총학생회도 좀더 큰 대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교조 '고뇌에 찬 결단' 이후의 과제

—교육현장 복귀에 거는 우리의 기대

새정부출범후 교육부는 개혁사안 목록 가운데 교육개혁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학원비리의 감시와 처벌만이 그 전부가 아니다. 교육의 기본이념과 제도와 교사들의 의식개혁의 전환, 그리고 참교육에 따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처럼 입구지 참교육문제는 지금까지 개혁을 보이지 않고있다. 세정부의 난제였던 전교조문제 역시 교육부의 보수적인 완강한 방침 때문에 결국 전교조가 주장해온 개혁성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게 됐다. 이에 따라 김영삼정부가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개혁의지의 또다른 한계가 드러나는 지적도 연할 수 없다.

여하튼 전교조가 전교조 선발되 후복직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 김행부를 제외한 일반해직교사들의 복직신청을 허용키로 하고 추가 복직신청 마감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복직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일괄 복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교조가 '조건없는 전원복직'이라는 종래 입장을 바꾸어 '전교조 탈퇴 확인'을 감수하고 학교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은 표현 그대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에 틀림없으리라. 이런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순응이나 굴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교조의 추진안들이 지배권력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전망이 불투명하자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목표실현의 의지를 꺾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벌여온 교육개혁운동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전교조의 절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9년 5월 출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교조가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겪는 가운데서도 강인하게 추진해왔던 사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위한 정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해직까지 각오하고 그동안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던 이유가 교육개혁과 참교육의 실천이었던 만큼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다.

이제 전교조에 남은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학재단의 수용거부문제, 사회민주화 관련직교사의 복직등 수월치 않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전교조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최대 다수가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대전제하에 새로운 조직의 정비와, 둘째 학교로 돌아갔을 때 동료교사와 적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세째는 전교조 자체의 운동방향 탈바꿈이다. 현장에서 교육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실천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전교조는 전술적 변화라고 하기에는 분명치 않다해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몫이 되어야할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교수기고 — 개천절날 바라본 독일통일 3년과 그 교훈

신 용 철
〈문리대교수·사학〉

1. 개천절

민족의 유래와 존재를 확인하는 4천3백2십5주년의 개천절을 맞으면서 나는 유구한 전통으로 자주 거론되는 반만년의 역사적 시간을 회고해 본다.

특히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최근 단군왕릉에 대한 발굴보고에서 단군 및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 키가 170센치나 되고 5천11년 전으로 그의 연대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새밝한 고증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우리 역사의 유구함을 더욱 늘려주는 것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국토의 민족 역시 668년 신라의 삼국통일 이래 항상 한국가로서 지속되어 왔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이래 정치와 이념에 의한 냉전으로 '분열된 세계속의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또 하나의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통일은 우리만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하였다.

이에 우리의 개천절인 10월3일은 3년전 독일의 통일된 날이기도 하니, 이 날은 두나라에게 모두 국경일이 된다.

2. 외치는 통일자세

생활의 관습이나 의식 때문인지 우리는 조용하고 내면적이기 보다는 구호를 통해 외면적으로 통일을 외쳐오고 있다. 가장 큰 운동의 목표로서 통일을 실정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통일이 올 때까지 통일을 외치자'는 구호나 '통일 염원 ○○년'이라고 쓰는 것 등은 우리들이 하원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통일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절근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더욱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지만 통일을 외치는 우리의 구호나 또는 용어의 사용등으로 보면, 통일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예를 들어 '국토통일원', '통일로', '통일호(열차)', '통일동산', '통일의 노래',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와 학계 및 연구계의 각종 '통일 연구소'등 통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생활화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열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과연 충분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서독이 통일전 우리의 통일원에 해당하는 부처를 '내독성(內獨省)', 통일연구소를 '독독일연구소'등으로 명칭을 개관함한 것은 우리와 좋은 대조가 된다.

독일통일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의 '꿈'등으로 속하는 것을 함께 성장시키자'는 목표나 당시 동일의 실무장관이었던 라이너 바르쩰의 '접근하면서 변화시키자'는 통일의 지혜를 우리는 거의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들은 대체로 통일에서 오는 내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라기 보다는 통일에 대한 선동한에 에서 통일 불가능이나 통일의 경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다.

확실히 독일은 통일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적응해야 했던 모든 사회·경제·정치적인 국가 재조가 3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념이 달랐던 양쪽 국민들의 의식적인 접근 역시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는 일은 아니다. 옛 소유 재산을 둘러싼 엄청난 분쟁 역시 그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분단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데는 한세대 또는 는 분단의 시간인 근 50년을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나라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이 있듯이 격차는 영원히 계속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통일과 통합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통합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확실히 인류역사에서도 그러한 과정은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45년간 제도와 이념으로 이질화된 문화의 모험적인 통합과 적응을 시험하는 것이다.

3. 통일후유증에 대한 우리의 시각

통일 후 3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의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매우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 독일의 풍일을 흥분과 환호 속에서 잘재를 보내던 우리는 이제 그들의 통일 후유증을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연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기회가 오자마자 독일은 그들을 분단시켰던 마·영·불·소등 강대국이 제동할 겨를도 없이 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성취시켰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도 한국인들은 독일의 통일은 강대국의 견제로 우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통일은 우리를 분단시켜놓은 강대국들인 미·소나 주변의 중·일등이 과연 바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다. 우리의 통일이 그들 모두에게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가이익에 유익할 때만 우리의 통일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의 정치 및 외교 영역의 부절한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점을 우리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명백하게 보아왔다.

3. 통일후유증에 대한 우리의 시각

통일 후 3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의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매우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 독일의 풍일을 흥분과 환호 속에서 잘재를 보내던 우리는 이제 그들의 통일 후유증을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연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들은 대체로 통일에서 오는 내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라기 보다는 통일에 대한 선동한에 에서 통일 불가능이나 통일의 경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다.

확실히 독일은 통일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적응해야 했던 모든 사회·경제·정치적인 국가 재조가 3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념이 달랐던 양쪽 국민들의 의식적인 접근 역시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는 일은 아니다. 옛 소유 재산을 둘러싼 엄청난 분쟁 역시 그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분단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데는 한세대 또는 는 분단의 시간인 근 50년을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나라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이 있듯이 격차는 영원히 계속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통일과 통합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통합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확실히 인류역사에서도 그러한 과정은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45년간 제도와 이념으로 이질화된 문화의 모험적인 통합과 적응을 시험하는 것이다.

4. 준비하는 통일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통일이 올때까지 통일을 외치지 않았던'독일인들의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용어와 수많은 구호들이 과연 우리의 통일의식이나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단 말인가? 특히 최근에는 독일의 통일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흡수통일에 대해서 자주 거론한다. 한편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 통일의 비용을 계산하며 통일체전의 발행까지도 정부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 통일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것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또 조용히 우리의 경제를 착실히 성장시켜 안정의 유익함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통일 3주년 기념식

통일의 3주년을 맞는 독일의 기념식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우울한 소식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 치고, 옛 동독 지역의 재건은 여의치 못하다. 실업자의 급증, 동독 지역의 소외의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3일 프랑스 국경지대의 자알란드에서 거행된 통일 3주년 기념행사에서 "통일도 나태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콘 바이제커 대통령은 8천만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의 위기는 결코 통일의 결과가 아니라 분단의 산물"이라고 매우 역사적인 안목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통일로 인하여 그동안 요구되어 왔던 "많은 구조적 변화들이 촉진되고 있을 뿐"이라고 냉철하게 사태를 분석했다. 우울한 장기간의 사색과 지혜롭 모르도록 활발한 노쟁을 통해 독일인들은 이제 통일의 환희가 아닌 미래를 향해 착실한 국가개조의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독일인에게 통일을 에다게 바랬던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헤겐의 변증법은 오늘날 그들에게 더욱 유효한 듯이 보인다. 분단을 기본테제로 본다면, 통일이란 종합테제로 귀착되는데, 그 사이에 반테제인 동·서독의 유산과 그 자체역시 전반적인 변증법적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반테제의 극력한 변화와 함께 통합이란 종합테제 역시 이미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인들은 매우 힘들지만 적실하게 이 변화에 적응하며 또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은 지금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적 발전의 역사적인 실험대 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 커다란 경험과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통일 아닌 분단의 산물"
… 독일인의 역사의식 교훈 삼아야
요란한 '통일'대신 상호협력의 내적기반 다질때

21世紀, 통신혁명 新世紀—

無限의 젊음으로
無限의 미래를…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무선통신산업(기술, 경영)논문 현상공모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은 통신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선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전국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학술논문을 모집합니다.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은 미래 정보화 사회의 주축이 될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무선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보다 질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 국내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무선통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응 모 요 강

1. 참가대상 : 전국 대학 전문대 이상 및 대학원 재학생 (단급불문)
*해외교포 대학생 및 한국인 외국유학생도 응모가능
2. 응모기간 : '94. 1. 15까지
3. 응모주제 : 2개 분야중 1개 분야를 택일
•무선통신 관련 정책, 경영, 마케팅 등 일반분야
-정책과제, 정기발전전략, 담당대책 및 대책, 마케팅전략, 부정전략 등 일반논제
•무선통신관련 기술분야
-이동통신, 위성통신, 개인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주제
4. 응모요령
•참가 희망주제를 분야내지 항목 분야를 임의로 선택 가능
•A용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매수제한 없음. 원고용지나 워드페이 표시된 리포트 용지는 사용불가
5. 시상내역
•개인시상

구 분	인원수	시 상 내 역	비 고
최우수상	1명	•상패 •상금 500만원	분야불문 1명
우 수 상	2명	•상패 •상금 300만원	각 분야별 1명
가 작	7명	•상패 •상금 100만원	각 분야별 3~4명
입 선	20명	•상금 30만원 •기념품	각 분야별 10명 내외
응 모 자	전원	소정의 기념품	-

•입상자 특전
-우수상 이상에게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통신업체를 연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포항제철 및 계열사 입사희망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제
-가작은 서류전형 면제

•단체시상
-응모자명이 표준니다 직장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여 입증점수 이는 각 분야대회 확정 후 연구실비를 지급
-전수부문 : 택
-A시상내역

최우수	우 수	가 작	입 선
1개	6개	3개	'일'

-B시상내역

17점 이상	13~16점	10~12점	7~9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원은 대학교수로 100점중 A시상은 최대점수 8점 이상에 지급
6. 작품심사 :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1차심사 : 논문심사로 30편 선정
•2차심사 : 논문심사로 10편 선정
•3차심사 : 논문발표(5분)로 최우수 우수 가작 선정
7. 논문발표대회 •일자 : 1994. 1. 31 •장소 : 별도안내
8. 입상자발표 •1차 발표 : 1994. 1. 25 •최종 발표 : 1994. 2. 3
9. 제출처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연합빌딩 19층 우 110-110 신세기이동통신 홍보팀 우편및 직접접수 가능
10. 기 타 •응모자들은 청사양로서 비 발표 작품이어야 함
•입상자 본인 지참금은 직지에게 있으며 신세기이동통신과 후원기관에서 기념품을 위탁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세기이동통신 홍보팀으로 문의 TEL : 399-6091, 6348, 6047

제철소국에서 통신보국으로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

주최처 :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
협후원 : 중앙일보사, 한국경영학회, 한국통신학회